



성명서

2021. 12. 26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해명해야 할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 김건희 씨

- 국민의힘은 마타도어 중단하고 김건희 씨 소유 전체 증권사 2011 ~ 2012년 주식 계좌거래 내역 및 도이치모터스 최종 수익 금액 명확히 밝혀야
- 이재명 후보 우량주 장기투자 권유 발언을 1992년에 왜 HTS 사용하지 않았느냐며 주가조작 공범 운운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의 무지에 이연실색

국민의 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0일 네거티브를 중단하자고 선언했음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서 한 발언을 두고 ‘주가조작 공범을 자백’ 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해 주식투자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1992년 첫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작전주였고, 이후 대박 주식만 쫓다보니 IMF외환위기때 큰 손실을 본 후에 대형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주식투자를 해본 사람 이라면 누구나 한 번 짚은 경험해 봤을 법한 이야기이다.

주식투자자들에게 작전주, 테마주, 단기투자를 하지 말고 대형 우량주위주로 장기투자를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에 왜 1992년도에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용하지 않았느냐며 주가조작 공범 운운하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의 무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주가조작을 해명해야 할 사람은 주가조작 전주 의혹이 있는 김건희 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경찰 내사보고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10년도에 주가조작 몸통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 현금 10억 원이든 계좌를 맡겼다고 한다.

지난 10월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계좌를 공개하면서 주가조작 공범에게 계좌를 맡겼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김건희 씨가 매수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2억 상당으로 무상증자 물량을 포함하면 전체 주식수의 4%대로 추정되는데, 이런 위험한 작전주에 김건희 씨가 어디서 용통한 자금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주가조작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작전주에서 수십억의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주가조작 공범들이 구속기소 됐음에도 김건희 씨는 검찰 소환 조사 조차 받고 있지 않다. 국민의 힘은 우량주 장기투자 권유를 주가조작 운운하기 전에 김건희 씨 소유 2011~2012년 전체 주식 계좌거래 내역과 도이치모터스 최종수익 금액을 밝혀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

2021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 김병기, 홍기원, 황운하, 김승원